

화학 관련 화재사고 잇따라...

12월13일 0시30분경 부산의 한 신발 밑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신발 밑창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자재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지하 1층 130여㎡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12일에는 보령 황도의 해상에서 화학물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12월12일 오전 11시2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서방 20마일 해상에서 1995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불이나 1시간 40분여만에 진화됐다.

운반선에는 화학물질이 실려 있지 않았으며 선장 이모씨 등 12명의 승선원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0일에는 청원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아 소방차 10대가 출동했다.

12월10일 오후 10시25분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립식 건물 1동(약 660㎡)이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3>